

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경희권 연구위원 · 이준 선임연구위원 · 김상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미국 국제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교역 구조의 급변과 함께 서비스 분야, 특히 AI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 전송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금융(지급·결제 등) 규제 체계는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향후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양국의 지속적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 서론¹⁾

트럼프 제1기 행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미국의 대중 상품 수입 및 적자 규모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다. 다만, 이는 멕시코·베트남·대만·한국·말레이시아 등 기존 미국의 상위 20여 개 교역 대상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상품 수입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수입의 증가, 즉 “거대한 재배치(Great Reallocation)” 현상이며, 점차 공급망 전환 기간과 매물 비용이 큰 산업군에서 탈중국 입지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²⁾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에 직면한 중국의 거대 수출제조업 생산 물량은 더욱 낮은 단가로 신흥권역과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상품 수입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AI 기술혁명과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특수를 맞이한 한국의 입장에서, 주력산업군의 미래 시장과 경쟁우위 기반 확보 및 수성의 제1 위협 요인은 이제 중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다. 메모리 전공정 시설과 막대한 국내 인프라(LNG, 원유, 원자력 발전, 조선 등) 건설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 또한 잠재적 리스크다. 미래 국력과 위상을 결정지을 21세기 현시점에서, 한국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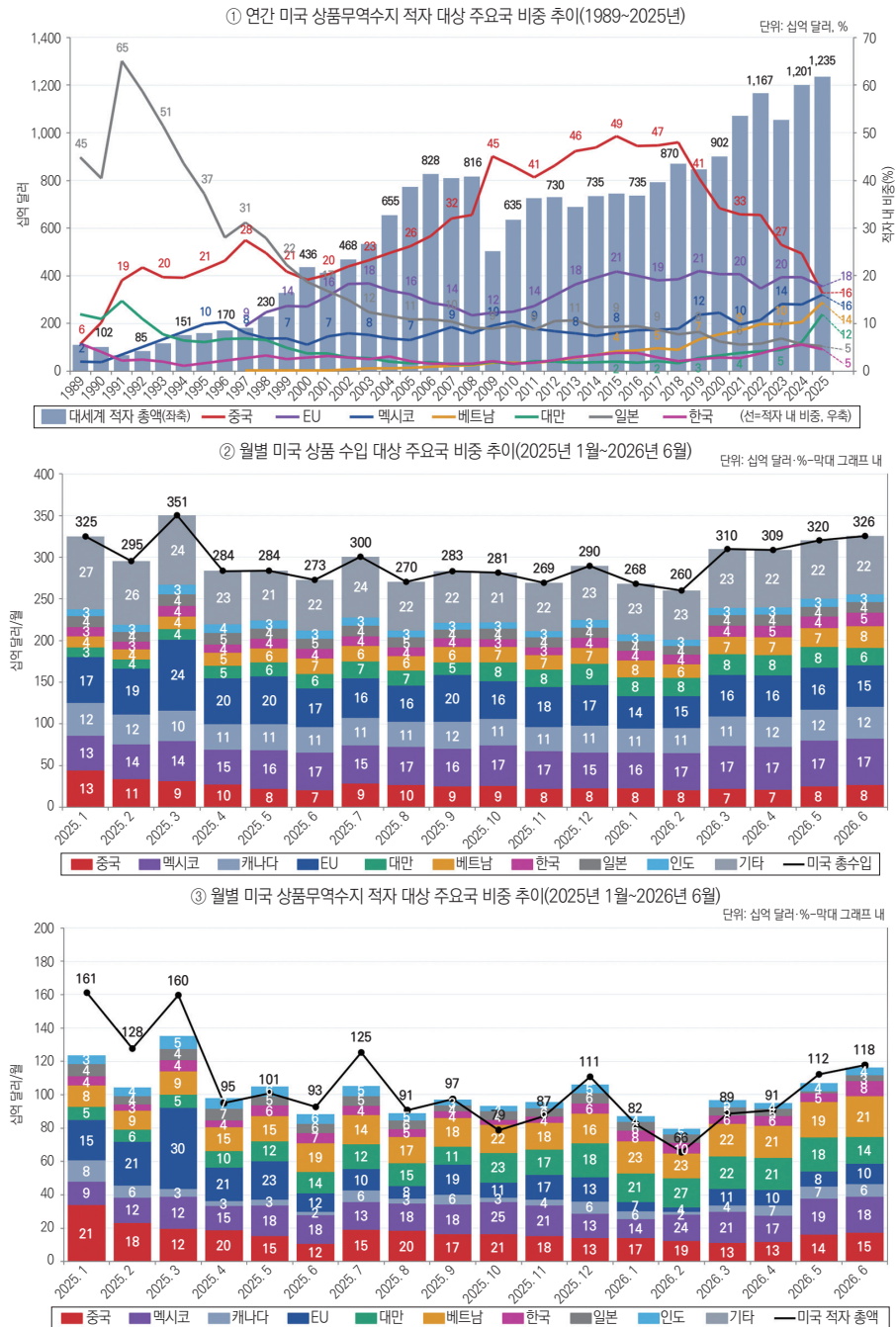
2. 미국 상품 수입 시장 동향: 거대한 재배치와 AI 트레이드

(1) 거대한 재배치(Great Reallocation)

미국 상품 교역 적자 내 중국의 비중은 2016년 전후 45% 가량 수준에서 15% 내외로 축소되었다. 미국 상품 수입 대상국 중 25% 내외 비중을 차지 하였던 중국은 최근 월별 집계 기준 10% 이하로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고포나스(Gopinath), 코웬(Cowen) 등은 이를 2001년 말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직전 수준임을 지적³⁾하였다. 다만, 이는 미·중 간 직접교역(Direct·Bilateral)에 한정되는 내용으로, 제3국 우회 및 경유와 중국 산업의 미국 외 원료·중간재 및 소재·부품·장비 공급 증가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Alfaro and Chor, 2025)는 대중국 수입 감소를 상쇄한 주요 국가로 베트남·멕시코·대만·아일랜드·한국 등을 꼽았는데, 특히 베트남은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 품목인 전자제조(EMS), 즉 라우터·통신장비, 랩톱·컴퓨터 부품, SSD 등 품목군 대미 수출이 폭증하였다. 2017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 감소 금액은 655억 달러인 데 반하여, 베트남은 872억 달러 상승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서버, 자동차(5톤 이하 트럭과 전기차 포함)·부품·전장 등을 주력 품목으로 2017년 대비 2024년 대미 수출액이 1,926억 달러 증가하였다. 대만 역시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이 738억 달러 가량 증가하였는데,

〈그림 1〉 미국 상품 수입 교역 대상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 ① U.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②, ③ UN Comtrade.

주: ① 상품무역수지 적자 대상국 비중 = 대상국 적자/대세계 적자(총액), 막대그래프는 짝수 연도, ② 수입액 CIF 기준,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합산, ③ 수입액 CIF, 수출액 FOB 기준, 개별 국가·권역 비중=(개별국 대상 수입액 - 수출액/미국 전체 수입액 - 수출액)이므로, 개별 국가·권역 대상 미국 상품무역수지 적자 비중 합산은 100% 초과 가능.

서버 컴퓨터와 비메모리 반도체 등 컴퓨팅 관련 품목이 합산 5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400억 달러 가량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산업 특성상 80% 이상이 바이오의약품과 원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600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일견 자동차, 컴퓨팅, 화학, 바이오의약품, 기계 등으로 다각화된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되나 대다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대만을 경유하여 서버 형태로 미국에 수출되므로 반도체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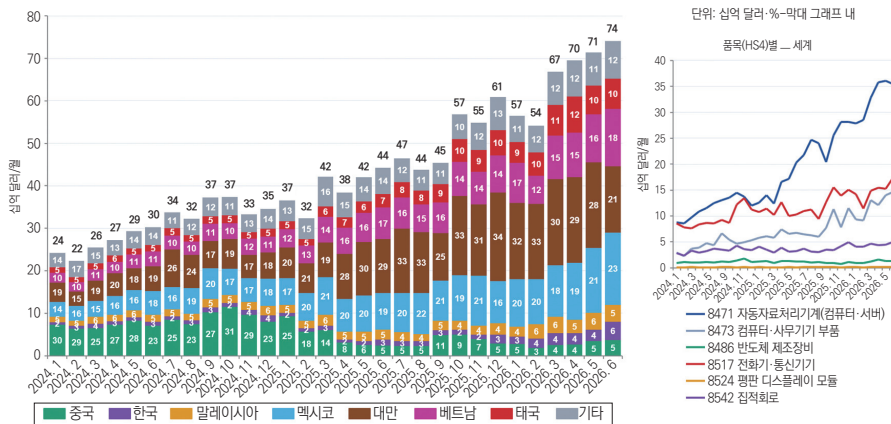
전자산업의 비중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자 부문 대미 직접 수출은 서버용 RDIMM 메모리 모듈 및 기업용 SSD가 주력 제품군이다.

(2) AI 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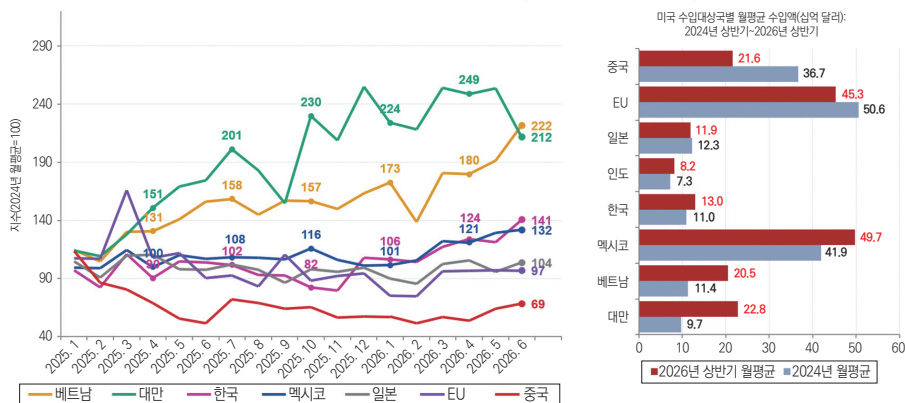
이상 미국 무역 현황 검토를 통해 한국 산업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대아시아(중국 포함) 상품 교역 적자의 요체는 다른 아닌

〈그림 2〉 최근 미국 반도체·전자제품 수입 규모 및 대상국 비중 추이

① 미국 ICT 상품 수입 주요 대상국 비중 추이(2024년 1월~2026년 6월)



② 월별 미국 주요 수입 대상국 수출 통관 금액(2025년 1월~2026년 6월)



자료: ① UN Comtrade, ② U.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주: 1) HS 4단위 코드(8471, 8473, 8517, 8524, 8542, 8486) 합산, 부가가치 기준 아닌 원산지 통관 기준(한국 HBM은 대만, 서버용 RDIMM 모듈(HBM 외)은 미국으로 주로 수출).

2) 2024년 월평균=100임.

반도체와 전자제품군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 무역 적자 증가는 통상정책 변화나 국제정치 갈등(미·중 무역분쟁 및 이란 전쟁 등)의 영향도 존재하나, 인공지능 헤게모니 선취를 위한 역사상 전례 없는 반도체·전자제품 수요 견인의 국면, 즉 AI 기술혁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 전공정 시설 투자 압박, 최근 대만 주요 전자제조 기업들의 서버·컴퓨팅 장비 생산 시설 투자와 가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내 폐쇄형 밸류체인 완성(Closed Loop)을 추구하는 전략적 기조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가지 고찰한 만한 부분은 미국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산업 역량이나 무역 수지 흑자의 수단, 혹은 미래의 막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기술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유럽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제2차 세계대전,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그리고 현재 중공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늘 적성국(Adversary) 대비 절대적 양(Quantity)의 열세 극복을 위하여 기술 우위에 기반한 상쇄 전략(Offset Strategy)을 추구하였는데, 제1차 상쇄전략(1st Offset)은 핵 3축(Nuclear Triad, ICBM·SLBM·전략폭격기), 제2차 상쇄전략은 GPS 정밀유도무기(크루즈미사일 포함), 스텔스 전폭기 및 대소련 반도체 우위로 요약된다. 제3차 상쇄전략이 바로 AI 역량(우주군 결합)을 활용한 글로벌 킬체인(Kill Chain) 네트워크와 퍼지컬 AI로 대표되는 차세대 기술 도입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로 규정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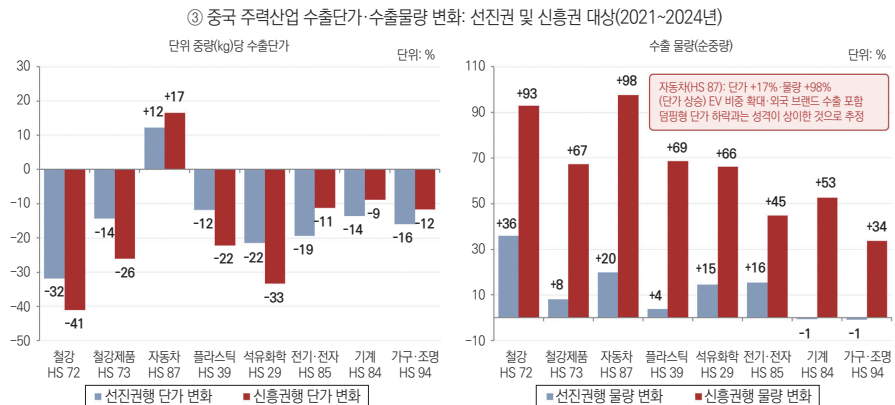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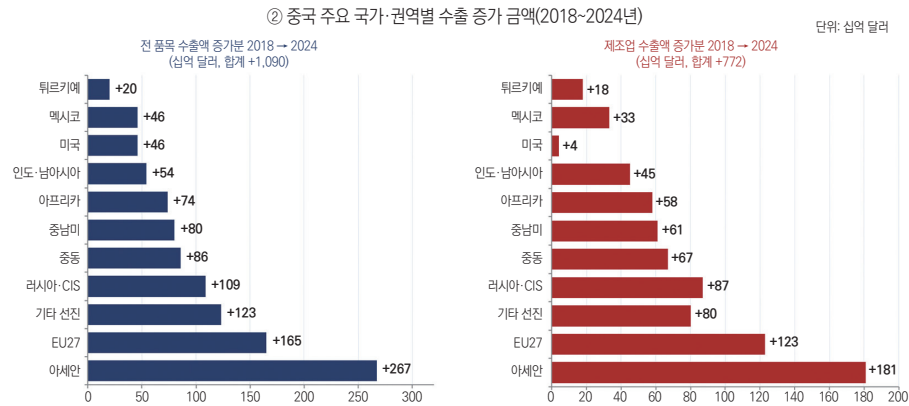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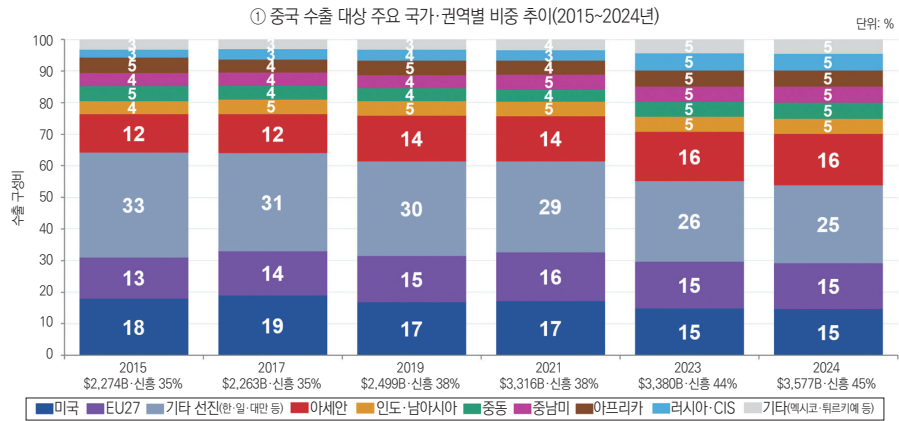
3. 중국 수출제조업의 신흥국 시장 팽창

미국 시장 외 중국 수출제조업의 시장 확장은 선진 권역에서 주로 유럽연합(후술), 신흥 권역에서는 ASEAN,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서남아 등 비서방권 전역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유럽연합 대상 수출 금액이 201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경계할 부분은 수출 단가(수출금액/kg) 역시 거의 모든 주력산업 영역에서 대폭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첫째, 배터리 수입 비중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80%, 인도 86%, 필리핀 71%, 베트남 80% 등을 차지하며 8개 신흥국에서 중국 발 제품이 압도적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한국은 중국 수출 점유율이 폭증한 이들 국가 내 수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⁵⁾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입 물량이 말레이시아 수입 내 비중 77%, 태국 76%, 인도네시아 75%, 브라질 75% 등을 차지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해당 국가들에서 대부분 4%대 이하에 머물렀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대중 수입 비중이 인도네시아가 42%로 가장 높았고, 이후 태국 41%, 말레이시아 40%, 브라질 26%, 사우디아라비아 23% 순이다. 기계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60%, 태국 52%, 필리핀 43%, 베트남 45%, 중전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금액 비중에서 47%, 인도네시아 58%,

〈그림 3〉 중국 수출 동향(2015~2024년)



자료: UN Comtrade.

주: ① 2026년 9월 2일 기준 중국의 UN 보고 통계(수출, FOB 기준/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는 2022년 이후 중국의 UN 보고 내 미기재(국가별 10억 USD 내외)/기타 선진 권역에 홍콩 포함/신흥권역은 ASEAN 10개국, 인도 및 (서)남아 5개국, 중동 13개국, 중남미 20개국, 아프리카 54개국, 러시아 및 CIS 11개국 및 멕시코와 튀르키예/선진권은 미국, 유럽연합 27개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② 전체 수출 품목 HS 01~99 포괄/제조업은 HS 2단위 기준 28(무기화학), 29(석유·유기화학), 39(플라스틱 등), 40(고무 등), 72(철강), 73(철강제품), 84(기계), 85(전기전자), 86(철도), 87(자동차), 88(항공), 89(선박), 90(광학·정밀), 94(가구·조명), ③ UN Comtrade 데이터 내 중량 미보고 시 합산 제외/신흥권 및 선진권 분류는 ①과 동일.

〈그림 4〉 한·중 수출제조업의 주요 신흥국 내 수입 점유율 변화(2015~2025년)

산업군 분류 (HS 4단위 기준)	중국의 수입 점유율(최신연도) - 2015년 대비 변화분(%)										한국의 수입 점유율(최신연도) - 2015년 대비 변화분(%)																		
	베트남 '23	인니 '25	태국 '25	말레이 '25	필리핀 '25	인도 '25	멕시코 '25	브라질 '25	사우디 '25	베트남 '23	인니 '25	태국 '25	말레이 '25	필리핀 '25	인도 '25	멕시코 '25	브라질 '25	사우디 '25											
전자제조	31 ▲4	55 ▲3	30 ▲6	24 ▲3	29 ▲20	57 ▲7	21 ▲21	45 ▲5	74 ▲22	24 ▲6.7	4.7 ▲1.6	4.3 -0.4	6.6 ▲1.8	16 ▲9.4	7.5 ▲0.6	5.3 ▲0.6	9.0 ▲4.4	0.1 ▲0.9											
가전	43 ▲21	75 ▲30	76 ▲31	77 ▲29	77 ▲22	51 ▲2	55 ▲18	75 ▲8	68 ▲29	4.2 ▲4.4	1.5 ▲2.1	2.6 ▲2.4	1.1 ▲2.4	2.3 ▲1.5	4.3 ▲0.3	4.0 ▲3.1	1.9 ▲2.9	1.7 ▲5.6											
중전기기	59 ▲21	58 ▲22	56 ▲15	47 ▲20	45 ▲22	50 ▲18	34 ▲8	48 ▲15	47 ▲37	12 ▲7.0	2.4 ▲1.3	1.3 ▲2.2	3.3 ▲0.9	4.6 -0.0	4.6 ▲4.1	2.4 ▲0.9	1.7 ▲2.6	6.1 ▲12.3											
기계	45 ▲24	60 ▲36	52 ▲27	43 ▲20	43 ▲26	42 ▲17	27 ▲17	40 ▲21	22 ▲10	20 ▲3.1	2.2 ▲1.5	2.4 ▲1.6	2.7 ▲2.3	6.5 ▲2.5	6.7 ▲0.7	5.3 ▲1.5	2.0 ▲0.9	3.5 ▲4.4											
자동차	14 ▲11	42 ▲39	41 ▲30	40 ▲31	19 ▲15	26 ▲10	25 ▲20	26 ▲22	23 ▲20	11 ▲8.1	2.2 -0.4	1.6 ▲0.6	0.6 ▲1.8	1.7 ▲7.1	11 ▲3.9	3.7 -0.1	2.5 ▲3.2	6.2 ▲10.2											
철강	46 ▲6	40 ▲9	35 ▲14	39 ▲15	74 ▲15	10 ▲10	7 ▲1	53 ▲15	51 ▲26	9.2 ▲3.1	9.0 ▲3.4	12 ▲2.1	8.2 ▲3.8	3.9 ▲1.9	17 ▲0.9	7.9 ▲4.3	11 ▲5.0	2.8 ▲6.4											
배터리	80 ▲34	72 ▲33	66 ▲39	57 ▲36	71 ▲52	86 ▲25	20 ▲8	67 ▲16	80 ▲67	6.3 ▲13.8	3.2 ▲1.2	5.1 ▲1.3	4.9 ▲3.9	2.6 ▲0.8	1.5 ▲1.7	2.3 -0.3	1.3 ▲5.2	2.0 ▲31.8											
조선	28 ▲19	60 ▲44	54 ▲44	10 ▲8	8 ▲37	20 -0	8 ▲4	50 ▲24	73 ▲64	32 ▲22.2	3.4 ▲1.4	0.1 -0.4	0.0 ▲1.1	44 ▲36.8	10 ▲8.0	0.0 -0.0	0.0 -0.0	0.0 -0.1											
중 변화(%)										韓 변화(%)																			
-20										0										+20									
-4										0										+4									
-8										-4										+8									

중 변화(%) -20 0 +20 +40

韓 변화(%) -8 -4 0 +4 +8

각 셀 = 최신연도 점유율(%) / ▲▼ = 2015년 대비 변화(%) 베트남 2023년, 中 벨간세 = 상승, 파란색 = 하락, 파란색 = 상승 / 흰색 中 +22 또는 -12 / 韓 ±4.5포인트 이상

산업군 분류 전자제조 8471-8517-8541-8542 가전 8415-8418-8450-8508-8509-8516 중전기기 8501-8502-8504-8535-8537 기계 8413-8414-8429-8431-8474-8479-8457-8466

(HS 4단위 기준) 자동차 8702-8704-8708 철강 7201-7229, 1차 제품 배터리 8506-8507(1차·2차전지) 조선 8801-8906(선박·해양구조물)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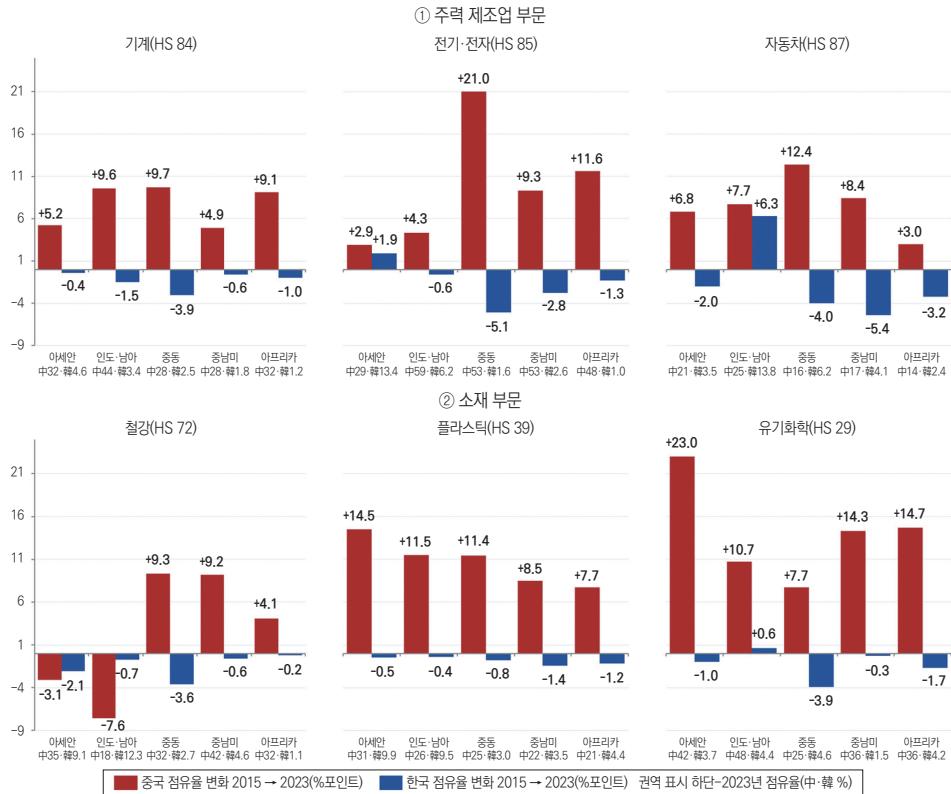
주: 1) 도착지 국가가 UN 보고한 CIF 기준 수입 금액 기준.

2) 2026년 9월 2일 기준 UN Comtrade 데이터 내 가용한 개별 국가 보고 최신 수입 데이터 집계, 베트남(2023) 외 2025년 기준.

3) 개별 국가 내 점유율 정의 = 대중(대한) 총 수입금액/해당 산업군(HS 4단위 분류 집계) 총수입.

4) (조선) 선박 편의차적, 재수출 및 등록 국가, 실질 소유·유행 국가 등에 따라 통관상 수출입 국가 실제 거래(이동) 국가 간 차이 존재.

〈그림 5〉 주요 신흥 권역별 한중 주력산업군 수입 점유율 변화(2015~2023년)



자료: UN Comtrade.

주: ① 도착지 국가가 UN 보고한 CIF 기준 수입 금액 기준, ② 개별 국가 내 점유율 정의=대중(대한) 총수입액/해당 산업군(HS 2단위 집계) 총수입액, ③ (권역 합산) 2015·2019·2023년 3개년 수출입 수치를 보고한 국가(아세안 10·인도·남아시아 3·중동 11·중남미 18·아프리카 38개국) 대상, 이란·방글라데시·네팔 2023년 미보고로 제외.

필리핀 45% 등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아세안 및 중남미, 중동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충격적인 중국 수출의 확장이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유지·방어 혹은 상승한 부분은 첫째, 일부 전자제조 부문이다. 이는 미국향 AI 최종제품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필리핀 등(주로 대만)으로의 반도체 및 모듈 수출이 포함된다. 둘째, 안보 장벽이 작동하는 조선산업이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전체 조선 수입액 내 중국 점유율이 여전히 과반이나, 한국은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32%, 필리핀 44%, 인도 10% 등을 기록

하여 최근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두 자릿 수 성장하였다. 셋째, 미국의 통상 압력이 전이되는 경우로 멕시코의 경우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 등 대미 관세 회피 유인이 작동하여 중국 전자제조, 배터리 산업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 철강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다. 넷째, 중국식 수입대체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로 이는 현재 인도에서 주로 관측된다. 중국산 철강과 전자제품(가전 포함)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철강 수입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 혹은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전자제조·자동차 부문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시설이 대폭

신증설되었다.

돌이켜보면 2010년대 이후 중국 산업 경쟁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인하여 수많은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의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및 저노임·저비용 지역으로의 시설 투자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등 악조건 속에서 투쟁해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13대 주력산업에 한 가지 긍정적 요소

를 찾아본다면 일본, 유럽연합 주요국 및 ASEAN 대비 국내 산업 경쟁력과 제조업 기반의 규모 및 역동성 측면에서 역량 보존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미국·유럽은 물론 주요 신흥권 국가들 역시 AI 기술혁명 참여 의지 및 대중국 견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 현지 합작 파트너로서의 채택 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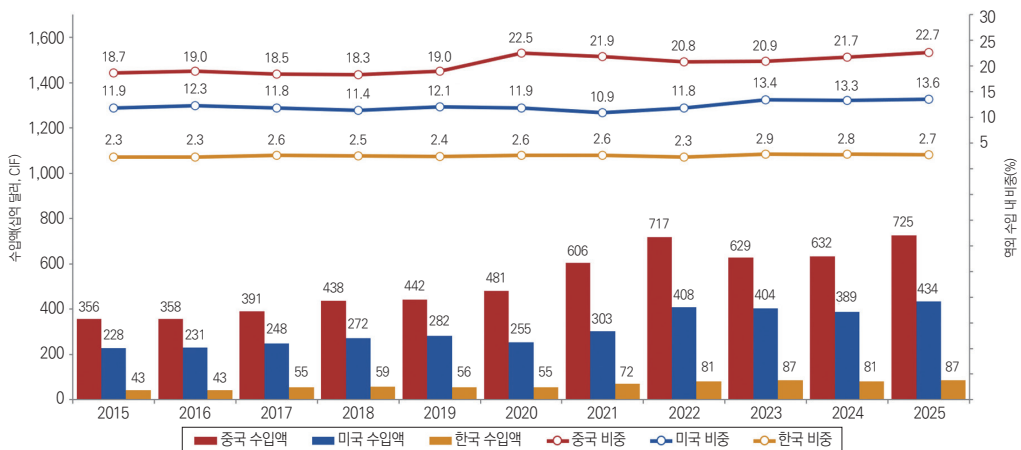
4. 유럽 시장, 한·중 산업 경쟁구도 현황

(1) China Red Wave

중국 수출제조업의 유럽 침투는 전방위적이다 (<그림 6> 참조). 2015년 대비 2025년 유럽연합의 대중 수입(회원국 간 제외, EU 역외 수입 총액 기

준) 비중은 18.7%에서 22.7%로 상승하였고, 금액으로는 3,564억 달러에서 7,248억 달러로 배증하였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43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로 유럽연합 대상 수출 총액은 배증하였으나, 중국과 비교 시 증가액 규모는 8배 가량 차이가

<그림 6> 유럽연합 27개국 대중·대미·대한 수입 금액 및 비중 추이(2015~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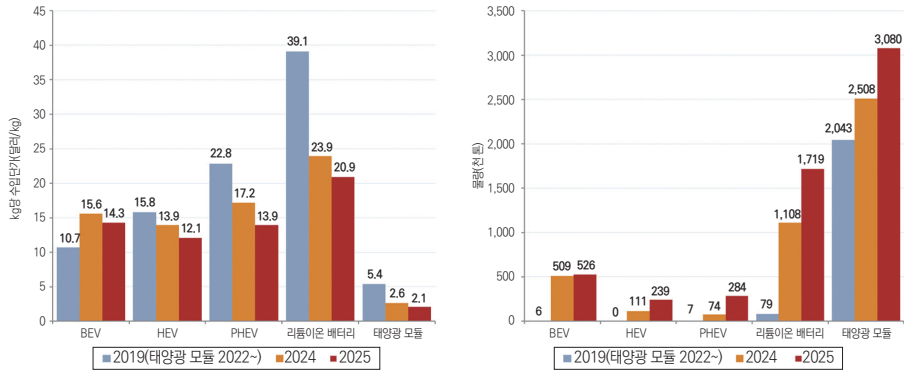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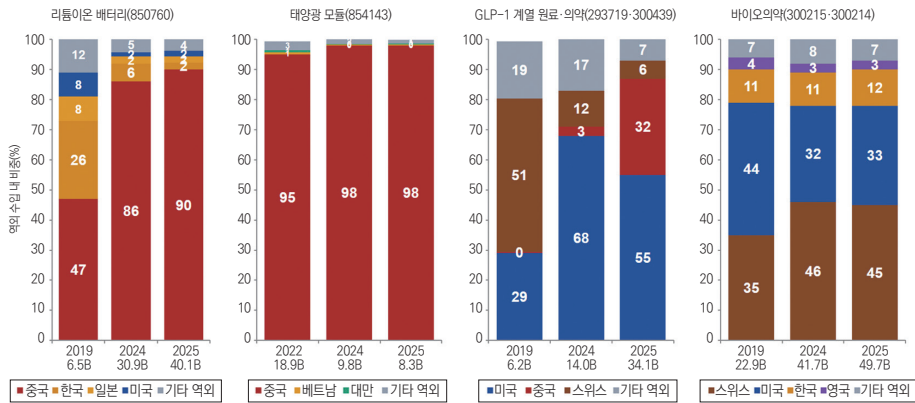
- 주: 1) 유럽연합(27개국) 2025년 CIF 기준 UN 보고(전체 회원국 보고) 수입 금액 기준.
 2) 역외 수입은 유럽연합 회원국 상호 간 수입 제외한 유럽연합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3) 개별 국가의 유럽연합 수입 총액 내 비중 = 개별 국가 대상 수입 금액/EU 역외 수입 총액.

〈그림 7〉 유럽연합(27개국) 대중 수입 급증 품목 수출입 동향(2019~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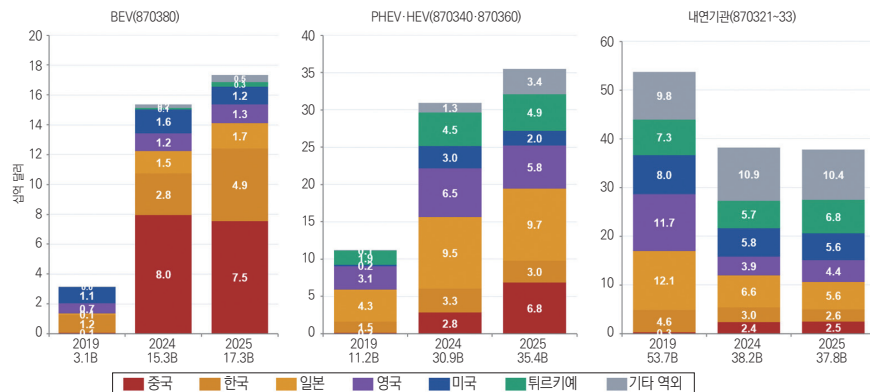
① 유럽연합 대중 수입 급증 품목 수출단가·수출물량 변화 추이(2019~2025년)



② 유럽연합 배터리·태양광 모듈·원료의약품·바이오의약품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 추이(2019~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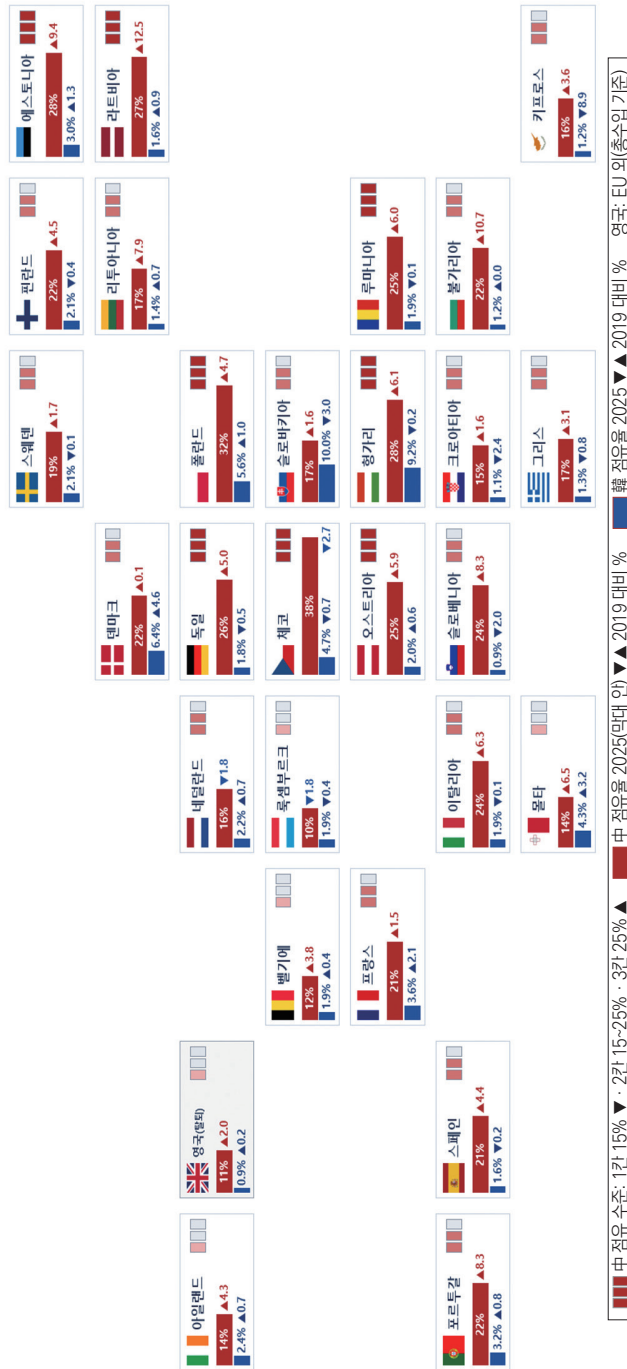
③ 유럽연합 BEV·하이브리드(HEV·PHEV)·내연차 수입 주요 대상국 비중 추이(2019~2025년)



자료: UN Comtrade, 유럽연합(27개국) 2025년 CIF 기준 UN 보고(전체 회원국 보고) 수입 금액 기준.

주: ① 전기차(BEV) HS 6단위 코드 870380, HEV 870340, PHEV 870360, 내연차 870321~33, 리튬이온 배터리 850760, 태양광 모듈 854143(HS2022 신설, 그래프 내 수치는 각기 2022, 2024, 2025년도 데이터), ② GLP-1 계열 원료는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등 HS 6단 위 코드 기준 293719, 호르몬 의약품 300439, 면역제품 300214(혼합·비소매)·300214(투약형·소매, HS2017) 단(일)클론항체는 형태 별로 300213·14·15에 분산, ③ 기타 역외 수입 대상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세르비아, 모로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그림 8〉 유럽연합 주요국 대중 수입 점유율 변화 추이(2019~2025년)



자료: UN Comtrade, 유럽연합(27개국) 2025년 CIF 기준 UN 보고(전체 회원국 보고) 수입 금액 기준.
 주: 1) 점유율 정의 = 개별 수입 대상국 수입 총액/각 유럽연합 회원국 역외 수입 총액 (영국의 경우 총수입 금액).
 2) 국가별 도표 내 위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리적 위치 및 근사 정도를 반영.
 3) 국가 출처: Lipis/flag-icons(MIT).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시장은 사실상 중국의 독점적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연합 수입 대상국 내 비중에서 중국이 각각 90%, 98% 가량을 차지한다. CBAM·배터리규정 등 통상 규범을 신설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수입 대체 혹은 역내 자립 역량이 부재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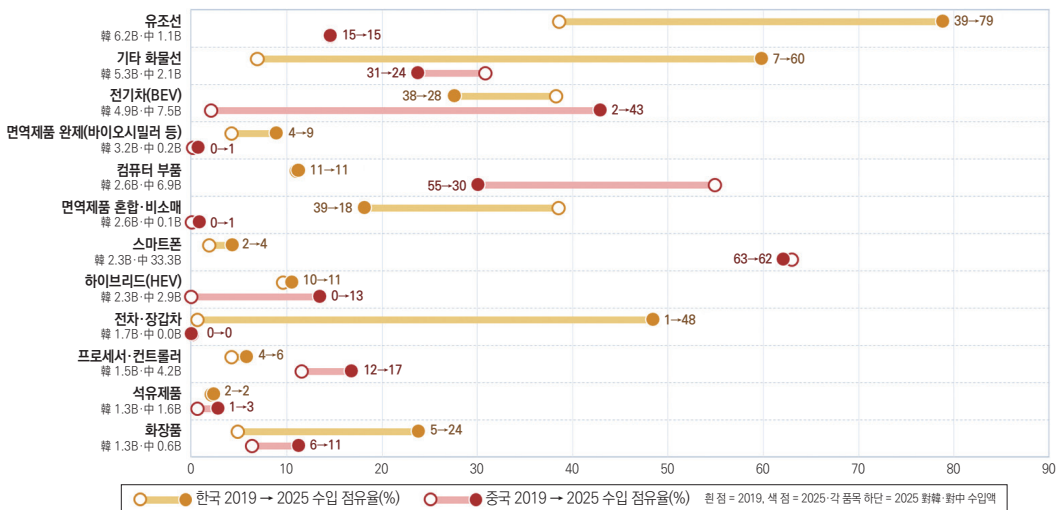
전기차(BEV)의 경우 최근 유럽 상계관세로 대 중국 수입액이 소폭 감소하고 대한민국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중국 기업은 PHEV·HEV로 품목을 전환하여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액이 배증하였다. 이는 품목별 국소적 관세 정책의 실효성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산 전기차 수출 단가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품 경쟁력 고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2) 한·중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 비교

한·중 간 유럽 시장 내 최대 경합 품목인 전기차·배터리의 경우,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및 기존 제조 클러스터가 집적한 국가·입지로의 양국 기업 자본투자와 제품 수출 집중도가 높다. 즉, 한·중 간 미래차 경쟁은 현지에서 바로 지금, 기존 유럽연합 주요국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 중국 대비 한국의 성장 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첫째, 안보와 관련이 깊은 조선과 무기체계, 둘째, 안전·위생·검역 기준 및

〈그림 9〉 유럽연합 주요 수입상품군 한·중 수입 점유율 변화 추이(2019~2025년)



자료: UN Comtrade, 유럽연합(27개국) 2025년 CIF 기준 UN 보고(전체 회원국 보고) 수입 금액 기준.

주: 1) 개별 품목 HS 6단위 코드: 유조선 890120, 기타화물선 890190, 전기차(BEV) 870380, 면역제품 완제(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 등) 300215, 컴퓨터 부품 등 847330, 면역제품 혼합·비소매(원료) 300214, 스마트폰·부품 851713·851779, HEV 870340, 전차·장갑차 871000, 프로세서·컨트롤러(비메모리IC) 854231, 석유제품 271019, 석유제품 330499/HS 6단위 코드 변화(시기별) 스마트폰 851712 ▶ 851713, 스마트폰 부품 851770 ▶ 851779, 전기차(BEV)·하이브리드(HEV) 및 면역제품(300214·300215) HS 2017 개정 시 코드 신설.

2) 점유율 정의 = 유럽연합(27개국) 대중(대한) 수입 총액/유럽연합(27개국 합산) 역외 수입 총액.

3) (조선) 선박 편의치적, 재수출 및 등록 국가, 실질 소유·운항 국가 등에 따라 통계상 수출입 국가 실제 거래(이동) 국가 간 차이 존재.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이 깊은 화장품, 면역 제품(바이오시밀러) 등이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베트남·인도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무역 데이터

로는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GLP-1 계열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최근 중국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유럽시장 내 한·중 기업 간 바이오의약품·시밀러 경쟁 격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5. 디지털 통상, 미국의 사활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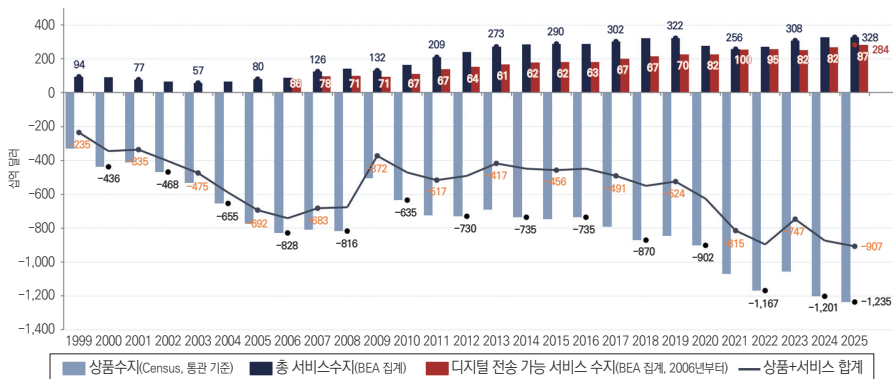
최근 AI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호황과 더불어 조선·원자력·방위산업, 즉 제조업 호황으로 인해 한·미 간 디지털 통상 이슈의 중대성(Gravity)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 등이 발표하는 공식 서비스 흑자는 현재 연간 3,300억 달러 수준인데, 연방정부 경상수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본사 소재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서비스 매출은 2023년 기준 2조 2,018억 달러로 약 7배다. 즉,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해외 현지 서비스 매출과 역외

과세 관할권 소재 누적 이득이 이를 크게 상회하며, 디지털 통상 이슈에서 유럽연합 및 주요 국가들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AGI 및 기술문명의 글로벌 스탠더드 선취, 그리고 국내 재산업화의 마중물로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 기업 등의 자금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국가 전략을 고려할 때, 디지털 통상 이슈에서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연합, 영연방 국가 및 인도 등 신흥권 주요국과의 법적 공방이 첨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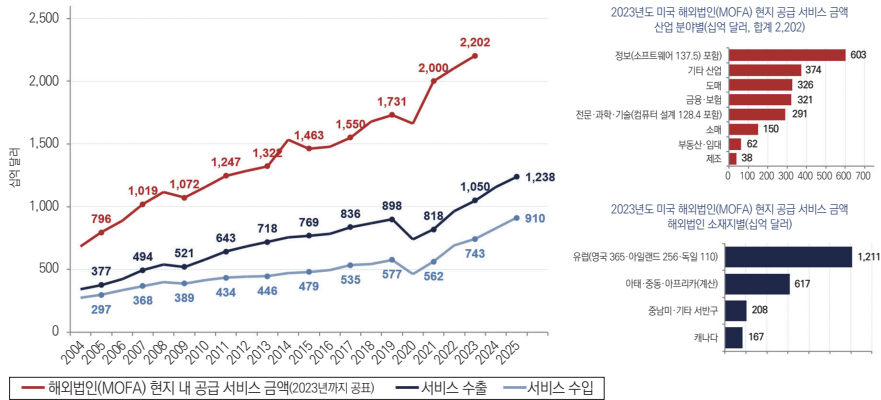
〈그림 10〉 미국 서비스 무역 및 역외 매출 추이(1999~2025년)

① 연간 미국 상품·서비스 수지 추이(1999~2025년)



(계속)

② 미국 서비스(용역) 역외 제공 금액 및 역내 공식 수출입 금액 추이(2004~2025년)



자료: ① U.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ervices Table 2.1, 2.3, 3.3, ②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ervices Table 4.1.

주: 1) BEA Services Table 2.1은 (역내 집계) 1999~2025년 기간 서비스 무역수지 제공, Table 3.3은 디지털 전송 가능 서비스 대상 2006~2025년 무역수지 제공/상품무역수지는 U.S. Census Bureau의 상품 통관 기준이 적용되고, 서비스 무역수지는 BEA 제공 BOP(Balance of Payments) 기준을 단순 합산하여 미국 연방정부 공식 BOP 경상수지와 차이 존재.

2) BEA Services Table 4.1은 MOFA(해외현지법인) 데이터 집계/우한단 패널 내 아태(APAC)·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치는 총 합산 금액에서 캐나다, 유럽 및 중남미·기타 서반구(카리브·버뮤다 등) 합산 수치 차감 금액.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대미 전략투자 이행과 관세 협상에 있어 디지털 통상 이슈 관련하여 우리 대응이 어려운 방식으로 지속하여 협상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래 디지털 서비스는 상업우주(LEO 위성 통신), 전 지구적 신규 지급·결제망(가상자산),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등 국가의 주권과 충돌하는 방향으로의 기술 발전이 전망되는데, 이는 사실상 한 국가가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유럽과 한국, 일본 등 기존 선진국들은 국내 법률과 공정거래 규율 체계 관점에서 미국과 본질적으로

〈그림 11〉 세계 주요국 및 한국과 미국 간 디지털 통상 주요 이슈 현황

① 주요국-미국 간 디지털 통상 주요 현안(2026년 8월 기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제한 + 현지화 요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디지털 과세 부담금	망 사용료 뉴스 사용료	클라우드 정보 조달	콘텐츠 쿼터 OTT 규제	온라인 안전 콘텐츠 규제	시행	법안·변동	2026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 지목 사항(USTR)
EU	●	●	●	●	●	●	●	●	●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데이터법, 클라우드 인증·방송 쿼터, 회민국 디지털세
브라질	●	●	○	●	○	●	○	●	●	데이터 현지화·클라우드 규제 법안(PL 4675/2025), 방송 쿼터·뉴스 사용료 논의
한국	●	●	○	●	●	●	○	●	●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개인정보 과징금·온라인클라우드법, 망사용료 법안·클라우드 인증·SI 인프라 조달
인도	●	●	○	○	○	○	○	●	●	중앙은행 데이터 현지화, 공동부담금 폐지(2% 2024, 8, 6% 2025, 4), 인터넷 규칙(2021)
호주	○	○	○	○	○	○	○	●	●	뉴스 사용료 협상법, 온라인안전법·스트리밍 쿼터
캐나다	○	○	○	○	○	○	○	●	●	온라인뉴스법, 온라인스트리밍법, 소버린 클라우드 구상·디지털세 폐지 발표(2025. 6)
영국	○	○	○	○	○	○	○	●	●	디지털세 2%(중산), 디지털시장경쟁법(지배적 지위 지정), 온라인안전법·콘텐츠 쿼터·잠재 이슈
일본	○	○	○	○	○	○	○	●	●	스마트폰 앱마켓 경쟁촉진법(2025. 12 전면 시행), 국내 사업자 대상 GPU·클라우드 지원(시행 중)

(계속)

② 한·미 디지털 통상 주요 현안(2026년 8월 기준)

◀ 유럽연합 디지털 규제 방향		미국 디지털 규제 요구 방향 ▶	
플랫폼 경쟁 규제	유럽연합·주요 회원국 입장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 사전규제(2023년 6개사, 2024년 booking.com 추가)-애플-메타-구글 제재	韓: EU 동조 ↓ 미국 동조 ↓ 한국 현안 인앱결제강제금지법(202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특검규제법(제류)	미국 입장·동향 "미국 기업 차별" 입장(2025. 2) 구형 투자자 301조 청원-하원 감독
데이터 클라우드 주권	유럽연합·주요 회원국 입장 데이터법-클라우드 인증(EUCS) 정부 클라우드-회원국 현지화	韓: EU 동조 ↓ 미국 동조 ↓ 한국 현안 지도 반출 제한-클라우드 인증 무량 개인정보 과징금(2026. 6) 구글 지도 조건부 승인(2026. 2)	미국 입장·동향 (韓美 Fact Sheet 언급) 클라우드 조달 (방분리/국내 저장)-고정밀 지도 반출 금융-재보험 데이터 국외 처리 개인정보 전송 제한 권한+과징금
망 사용자 뉴스 사용자	유럽연합·주요 회원국 입장 디지털네트워크법 제안(2026. 1. 21) 의무 망사용료는 제외하되, "자발적 조정" 절차 도입 호주-캐나다 ⇄ 뉴스 사용자 유지	韓: EU 동조 ↓ 미국 동조 ↓ 한국 현안 망사용료 법안 국회 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한국 입장: 접속-이용 대가	미국 입장·동향 무역대표부(USTR) "한국 유럽" (2026. 4) 韓美 Fact Sheet 언급
디지털 과세 부담금	유럽연합·주요 회원국 입장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 디지털 서비스세 유지	유럽 동조 ↓ 韓: 미국 동조 ↓ 한국 현안 디지털 서비스세 無 한국 입장: 부가세 ⇄ 국내 일반 조세	미국 입장·동향 디지털세 도입국 100% 관세 경고(2026. 6) OECD 합의 철회(2025. 1)
콘텐츠 온라인 안전	유럽연합·주요 회원국 입장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 eSafety	유럽 동조 ↓ 韓: 미국 동조 ↓ 한국 현안 방송법 내 외국인 소유 제한 (자랑과 글자-출판 등 지분을 양한) OTT 기금 부담 국내 콘텐츠 투자 의무 (법안 논의 단계)	미국 입장·동향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검열" 간주-비판 美 국무부 비자 제한 5명(2025. 12) 디지털서비스법 ⇄ 301조 조사 사유 (EU식 안전 - Safety 韓 관련 사항 無)

자료: ① USTR 2024-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Digital Markets Act, Digital Networks Act 등, ②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및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주요 회원국 법령과 판례 참조.

주: 한국 제도의 유럽·미국 동조(유사) 수준은 저자 판단이며,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301조 청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의 쟁점 사항 언급 여부 및 유럽 규제 법령과의 유사성을 고려.

상이하므로, 적잖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개인정보보호, 지급·결제, 여신업·자산거래소 인허가, 가상

자산 규제 체계, 우주항공 시장 민간 개방 등 기존 국가 체제와 사회의 주류적 담론이 공고한 분야에 서 근본적 차원의 논의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6. 시사점

2026년 현재, 미국의 국제전략 변화로 인한 세계 통상 구조의 변화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전 산업 분야의 AI 기술혁명 진전으로 인해 실로 미래 주요국의 흥망이 갈림길에 직면한 상황이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전략 방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고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첨단 반도체산업 역량의 사수(死守)다. 국내 인프라 조성 외에도

현재 미국·중국·유럽에서 기존의 과점 구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 매우 신속하게 실증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투자의 분야·위치·시점·규모 등을 포괄하는 전략계획 시 철저한 시나리오 접근과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국가의 본질적 산업 비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원 투입이다. 특히 AI 역량과 미래 반도체·바이오·핵공학·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및 입자가속기 증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안보 필요시 전략산업 분야 보조금과 세제혜택 강화,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준)조세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셋째, 신흥권역에 대한 과감한 현지화 투자를 통해 반도체 등 고급 중간재 판

로인 최종재 시장 점유율을 반드시 유지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핵심 주제어: 주력산업, 경제안보, 과잉생산, 국제무역구조 전환, 차이나쇼크 2.0



경희권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전략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hee0718@kiet.re.kr / 044-287-3288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반도체 전쟁, 5년의 승부」(공저, 2025)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공저, 2025)



이준

전략산업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
jlee@kiet.re.kr / 044-287-3246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경제안보적 영향 분석:
공급망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 전략」(공저, 2025)
「소부장과 공급망: '진짜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공저, 2025)



김상훈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서비스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
sanghoon_kim@kiet.re.kr / 044-287-3181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공저, 2025)
「양자기술 및 정책 현황과 시사점」(공저, 2024)

1) 본고는 공개 무역데이터(UN Comtrade) 및 문건을 참조하여 최근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 중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추세 보고, 즉 정보 제공 목적을 주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상세한 품목·기업 단위 무역데이터 분석은 본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보고서(양주영·이준·김현석 등) 참조를 권한다.

2) Alfaro, L. and D. Chor(2025), *An anatomy of the great reallocation in US supply chain trade* (NBER Working Paper No. 34490, revised April 202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doi.org/10.3386/w34490>

3) Tyler Cowen(2026), "China Shock Fact of the Day," *Marginal Revolution*, April 2,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04/china-shock-fact-of-the-day.html>, 타일러 코웬은 고티나스(Gopinath)의 트위터 내용을 인용(Gita Gopinath(2026), "It is striking how much direct trade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fallen off over the last decade," *X*, April 2, <https://x.com/GitaGopinath/status/2039683565596623263>).

4) Sankar, S. and M. Hart(2026), *Mobilize: How to reboot the American industrial base and stop World War III*, Bombardier Books(제1저자: Palantir CTO).

5)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출입 교역 데이터와 수치는 정식 통관 보고서 양국 간 거래(Bilateral Trade)로, 개별 기업의 역내 현지 생산 물량이나 역외 생산기지 수출 물량은 식별되지 않는다.